

건강 칼럼

사랑의 실천, '나눔과 기부'

어떤 부유한 농가에 한 걸인이 찾아들었다. 며칠을 굶은 걸인은 농부에게 음식을 요구했다. 농부의 창고에는 음식과 과일이 가득했지만 욕심 많은 농부의 아내는 다 썰어가는 마늘줄기 하나를 뽑아주었다. 걸인은 그것으로 겨우 요기를 했다. 세월이 흘러 농부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천사에게 천국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천사는 다 썰은 마늘줄기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베푼었던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마늘줄기의 한쪽 끝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시오."



이 남 예
고창군 사립기우기림 팀장

농부의 아내는 마늘줄기를 붙잡고 천국으로 날아올라 가려했지만 썩은 마늘줄기는 곧 끊어졌고 그녀는 깊은 지옥 불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불스토이' 단편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봉계청 2017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57.3%로 가장 높았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23.2%,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8.9%, 직접요청을 안 받아서 7.1%, 기부방법을 몰라서 3.5% 순으로 나타났다.

나눔과 기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다. 이들은 차별과 소외로 불안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고자 나눔과 기부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창군은 민선 7기를 맞아 자랑스런 고창민들기 군민운동의 일환으로 '나눔과 기부가치 공유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사업으로 접수된 기부금은 4150만원 이었다. 반면 올해는 불과 3개월여 동안 기업체, 개인,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5000여 민원에 달하는 장학금이 접수됐다. (재)고창군 장학재단에 접수된 기부금은 고창군 출신 및 그 자녀와 고창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면학에 정진토록 한다. 장차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향토인재를 양성하는데 투명하게 쓰여지게 된다.

지난해 (재)고창군장학재단에서는 70명(고등학생 30명, 대학생 40명)에게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일반장학금 6000만원과, 전라북도대회 이상의 경기 경연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예·체·기능장학금 4000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눔이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며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나눔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할 것이다. 진실한 나눔은 물질적 필요에서 오는 것이 아닌 마음의 풍요에서 오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나눔수룩 커지는 기부문화 확산 운동에 적극 참여해 모두 행복한 봄날이 되길 바란다.

독자제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하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의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통고처분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그 행위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쥐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한 손은 핸들을 돌린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며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차, 방향지시등 작동도 하지 않은 채 차선을 넘어 다니거나 갑자기 유턴을 하는 차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이 평소보다 4배나 증가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이다. 어느 정도의 범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손에 들고 전화를 받거나 거는 행위, 핸드프리라도 원터치가 아니고 일일이 번호를 눌러서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를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하는 사람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약화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이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운전 중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은 자제하고 전화를 거는 사람도 "운전 중 아니신가요?"라고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한마디로 시작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진재 원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도심에 죽어 있는 고래...이유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필리핀 파사이에서 작업자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죽은 고래의 울부짖음'이라는 고래 모양의 조형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은 예술을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 문화센터가 주관한 '지구 아트의 달' (eARTH Month) 행사의 일환으로 설치돼 5월 26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완주군의 수소 산업 경제에 부처

완주군의 수소 경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다 미래형 고부가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서울에서 내려와 완주군 수소경제 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을 터이다. 이총리가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터에서 행사를 가진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총리가 간담회의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활성화 의지를 말한 것도 또한 그렇다.

이 총리와 함께 내려온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완주군의 수소경제 산업이 얼마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 알 수가 있다.

총리실의 최창원 경제조정실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안호영 국회의원이 바로 그들인데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옆에서 지원해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송하진 도시사와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참석했다. 완주군의 수소 산업에는 밝은

미래가 전망된다. 문정훈 현대차 공장장, 허지행 한솔케미칼 공장장, 김기현 일진 복합소재 대표, 장성용 가온셀 대표 등 기업인들도 참석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총리가 이흥기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센터장으로부터 완주군의 수소경제 현황과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

완주군의 비전을 듣고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도 밝은 전망을 갖게 하는 이유이다.

완주군의 산소산업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되면 전북 경제는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리라는 기대이다.

송하진 도시사와 김승수 시장이 자리를 함께 한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것이 있다.

전주의 탄소산업하고 조화를 이루면 다른 시군들에게도 성취동기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이다.

완주군의 수소경제는 앞으로 산업계 관계 학계 3자의 연합으로 그 빛을 발할 것이 분명한데 그 성과를 이른 시일 내에 보여주기 바란다.

또다시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궁금하다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어떤지 또 다시 궁금하다.

지역 경제가 가뭄이나 어려운데 벤처기업들 쪽에서 힘들다고 호소할 때면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알량한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도내 기업 생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의 형편은 어떤지 궁금하다.

최저 임금제 실시 이후 아파트 경비원이며 아르바이트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다.

도내 벤처기업들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세태이다.

전북도에게 다시 묻거니와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궁금하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이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실제 상황을 팩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도로서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바람에 서이다. 전북도는 다른 현안들을 행하는 가운데 벤처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벤처 기업들이 탈 없이 잘 나가야 지역 경제가 숨을 돌릴 수 있

을 테니 말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힘입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데도 전북의 투자 비중은 1%에 불과하니 말도 안 된다.

전북도는 도내 벤처기업들을 편들고, 육성하고, 대변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도내의 여러 벤처기업들이 애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기업들의 생존률이 저조한 것에 생각이 많아야겠다.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 고민하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 실제로 고무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